

황정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새로운 액션 선보인다

이정재와 사투 하드보일드 추격 액션 영화

'청부살인업자'로 변신...내달 개봉 예정

배우 황정민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통해 새로운 스타일의 액션 연기를 펼친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마지막 청부살인 미션 때문에 새로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인남(황정민 분)과 그를 쫓는 무자비한 추격자 레이(이정재 분)의 처절한 추격과 사투를 그린 하드보일드 추격 액션영화다. '신세계' '베테랑' 등으로 신선한 리얼 액션을 선보였던 황정민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통해 다시 한번 오래도록 회자될 액션 명장면을 탄생시킬 것을 예고했다. 황정민의 리얼 액션의 시작을

알린 것은 단연 '신세계' (2013)였다. 그가 소화한 기업형 범죄조직의 2인자 정청은 조직을 대표하는 존재감을 지닌 인물답게 리얼함이 살아있는 액션을 선사하며 영화 흥행의 히든 카드로 부상했다. 특히 좁은 공간인 엘리베이터에서 다수의 상대 조직원과 뒤엉켜 펼치는 액션은 아직까지도 액션 명장면으로 손꼽히며 관객들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이어 황정민은 '베테랑' (2015)에서 행동과 광역수사대 형사 서도철로 분해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투박하면서도 리드미컬한 액션을 선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영화 후반부 명동에서 벌이는 악역 조태오와 거리 격투 장면은 통쾌하면서도 사이드처럼 짜릿한 쾌감을 선사하며 1341만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처럼 자신만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색다른 액션을 보여준 황정민이 이번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하드보일드 액션의 장르적 쾌감을 선사한다. 청부살인업자로 변신한 그는 무기에 의존하기보다 맨몸으로 사투하는 고강도 액션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극의 긴장감을 높인다.

특히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태국의 한 호텔 복도에서 무자비한 추격자 레이(이정재)와 펼치는 액션 씬은 쫓고 쫓기는 두 인물의 몸이 부딪히는 실제 타격을 가미한 것은 물론, 좁은 공간을 적극적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스틸컷

로 활용해 액션의 쾌감을 고조시킨다. 함께 공개된 스틸에서도 실감나는 표정과 액션 현상이 포착

됐다. 이처럼 리얼 액션의 완벽한 변신사를 선보이는 황정민의 노력이 스크린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7월 개봉 예정이다.

'서울촌놈' 차태현 이어 이승기도 합류

유호진 PD "큰 힘 받아"...시즌1 내달 첫 방송



'서울촌놈'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합류한다.

오는 7월 처음 방송되는 tvN '서울촌놈' (연출 유호진)은 서울만 아는 '서울 촌놈'들이 게스트가 살아온 동네를 함께 체험하는 하드코어 로컬 버라이어티다. 동

네 전설들이 직접 꼽은 '픽(PICK)' 플레이스에서 추억을 공유하며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만 아는 '서울 촌놈'으로 차태현에 이어 이승기가 출연을 확정, 캐스팅이 마무리되어

첫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장르 불문 '만능캐'임을 입증한 이승기, 친근하고 유쾌한 매력의 차태현이 시청자들의 웃음을 책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촌놈'을 연출하는 유호진 PD는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지만, 각 지방에도 새로운 활기와 매력이 생겨나고 있다"며 "지방 출신 스타들이 직접 안내하는 고향의 모습을 통해 진짜 로컬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획의도를 전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승기씨와 차태현씨의 매력을 보여드릴 예정이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서울촌놈'은 시즌제 제작으로, 시즌 1은 12부작 예정으로 오는 7월 처음 방송된다.

뉴스1

브랜뉴뮤직, 임영민 에이비식스 탈퇴 시킨다

CD 전량 폐기·음원 수정 다시 제작될 예정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그룹 에이비식스(AB6IX) 임영민이 팀을 탈퇴하면서, 에이비식스 새 앨범도 수정 작업을 거친다.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지난 8일 에이비식스 공식 팬카페를 통해 오는 29일 발매될 에이비식스 두 번째 EP '비비드'(VIVID)와 관련해 진행 사항을 알렸다.

소속사 측은 "당초 8일 발매를 목표로 앨범에 관련된 모든 콘텐츠와 제작물들이 100% 제작 완료된 상태였다. 허나 컴백을 불과 며칠 앞두고 벌어진 죄송스러운 사건으로 당사는 이미 모든 작업이 끝난 콘텐츠와 제작물들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신중하고 깊은 논의를 계속해 왔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음원과 안무 부분은 4인 버전으로 전면 수정된다. 소속

사 측은 "앨범 수록곡 6곡 모두 곡 구성과 일부 가사 등을 수정해 4명의 멤버들과 파트 재분배를 거쳐 재녹음을 마친 상태이며, 재믹싱, 재마스터링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렇게 수정된 음원은 각 음원 사이트들에 다시 전달되어 변경된 발매일에 맞춰 업로드될 것이며, 기존에 완성된 실물 CD 역시 전량 폐기하고 이 최종 음원으로 다시 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무도 4인 버전으로 새로 바꾸고 철저히 준비해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포장까지 모두 마친 상태인 앨범 구성품 가운데 수정이 힘든 부분은 기존 제작분이 사용된다. 또한 타이틀곡 '답을 줘' 뮤직비디오 역시 재촬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임영민의 출연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편집해 공개할

예정이다.

에비뉴(ABNEW/팬텀명) 2기 팬클럽을 위한 팬키트 역시 90% 이상 제작이 마무리된 상태였으나, 재디자인 및 재인쇄를 진행한다.

소속사 측은 "팬 여러분께 부득이하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애초에 없는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리며, 이해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만큼 꼭 좋은 음악과 콘텐츠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라며 "4인 체제로 새롭게 시작하는 에이비식스 멤버들의 힘찬 행보에 앞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브랜뉴뮤직에 따르면 임영민은 지난달 31일 새벽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이용해 숙소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게 음주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임영민은 팀을 탈퇴했고, 에이비식스는 4인 체제로 재정비 해 새 앨범을 29일로 발매한다.

엄지원, tvN '산후조리원' 출연 확정...8월 첫방



엄지원이 tvN '산후조리원'으로 인방극장에 컴백한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9일 '엄지원이 tvN '산후조리원'(극본 김지수, 연출 박수원) 출연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격정 찬스노아르 드라마로, 회사에서는 최연소 임원이지만 병원에서는 최고령 산모인 오현진(엄지원 분)이 재난 같은 출산과 산후조리원 적응기를 거치며 조리원 동기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출산 극복기를 그린다.

'산후조리원'은 한 여성의 인생 뿐 아니라 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담겨내지 않았던 순도 100% 임신과 출산 과정을 때로는 유쾌한 웃음과 공감으로 때로는 심장이 아릿해 지는 감동으로 선사하며 공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엄지원은 극 중 18년 차 직장인 이자 대기업 최연소 임원인 오현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오현진은 성공신화를 한차례 이룬 이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산후조리원에 입원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인물이다.

사회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임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조리원 내에서는 무엇이든 초보인 오현진을 연기할 엄지원은 특유의 카리스마와 유쾌함을 오가는 세심한 완급 조절로 극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예정이다.

엄지원의 최근 진행된 첫 대본 리딩 현장에서 "대본을 재미있게 읽었다. 재미와 의미가 함께 있을 때 베스트인데 '산후조리원'은 저에게도 의미 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라며 "모든 것을 불사해서 재미있게 촬영하겠다"라고 힘찬 각오를 밝혔다.

한편 '산후조리원'은 오는 8월 중 처음 방송된다.

뉴스1

양준일 측 "이혼·재혼 루머, 사실아냐"

가수 양준일이 이혼 및 재혼 루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양준일 측은 9일 오전 뉴스1에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양준일이 몰래 낳은 딸이 고등학교 생이며, 첫 번째 부인이 딸과 함께 곁에 있다'는 내용의 글이 유포됐다. 해당 글은 지난 3월 작성됐는데, 요즘 들어 재유포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양준일은 지난 1991년 데뷔해 히트곡 '가나다라마바사', 'Dance with me 아가씨', '리베카' 등의 히트곡을 남겼지만 2집 이후 활동을 중단했고, 이후 V2로 활동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온라인 탐골공원'을 통해 그의 음악이 새롭게 조명됐고, 같은해 12월 JTBC '슈가맨'에 출연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팬텀싱어3', 결승전 코앞...코로나19에 '방청객' 고심

내달 초 최종회... '생방 준비 중이지만 상황 지켜봐야'

JTBC '팬텀싱어3'의 파이널 무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방청객 모집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 제작진은 최종회 방청객 모집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팬텀싱어3'는 오는 7월 초 최종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팬텀싱어' 시즌1과 시즌2는 결승전을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방청단을 선발했다. 두 시즌 모두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결승전을 진행, 방청단의 참석과 국민 문자 투표 속에

마지막 무대를 마무리한 바 있다. '팬텀싱어3' 첫 방송 전 개최된 생방송 제작발표회 당시에도 결승전 진행 방식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김희정 PD는 "7월로 결승이 예정돼 있다. 원래 기존 시즌 1~2처럼 결승을 생방송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그때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다"며 "다른 방안을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회의하고 있다.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팬텀싱어3'는 지난주 본선 4라운드에 돌입, 최종 5팀이 본

격적인 4중창전을 시작하며 K-크로스오버팀 탄생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에 시즌3에서는 어떤 크로스오버팀이 4중창이 탄생할지, 시즌3 우승팀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려줄 라이브 무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방청단 참석 가능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제작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해 '팬텀싱어3' 관계자는 9일 뉴스1에 최종회 방청객 모집에 대해 "제작진이 고심 중"이라며 "지난 시즌처럼 최종회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시청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